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28호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정형근 스포티비뉴스기자

스포츠영화리뷰

학생 선수들의 인생을 바꾼 참스승. 영화 '코치카터'

문자영 위드인뉴스기자

8년 전 백혈병 환자, 건강한 모습으로 올스타전 시구

박병호 "박주상군의 완치, 우리 선수들에게 희망을 줬다"

하남직 연합뉴스기자

국내 학생선수 감소

경기도체금·투기 종목들, 학생선수 감소에 '위기감 팽배'

황선학 경기일보기자

국내 고교 야구

고교 야구 선수는 스타가 아닌 학생, 현장 지도자들의 절규

정철우 MK스포츠기자

안동시체육회

안동시체육회, 도민체전 출전 선수 뇌출혈 입원 '늑장 보고'

권정식 한국일보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스포츠 인권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전은 스포츠인권 보호 및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육인의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사례 공유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은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체육지도자, 인권지킴이 등이 지원 가능하며 대상별 주제에 맞는 우수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대한체육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스포츠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목적의 적절성과 우수사례의 창의성' 등이다.

수상자는 각 분야별 3명씩 총 9명으로 1등 수상자(3명)에게는 50만 원 상당 상품, 2등 수상자(3명)에게는 20만 원 상당 상품, 3등 수상자(3명)에게는 10만 원 상당 상품이 시상된다. 최종 수상자는 개별로 공지하게 되며 우수사례는 스포츠인권의날 공식행사 시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 07. 18.(월) ~ 09. 02.(금)

공모개요

공모기간 2022년 7월 18일(월) ~ 9월 2일(금), 18시까지

신청자격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에 참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체육지도자, 인권지킴이

공모주제 각 대상별 스포츠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노력 및 이행 실적

구분	주제	세부내용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스포츠인권 경영 사례	1. 단체에서의 스포츠인권을 위한 지원 사례 - 스포츠인권 교육, 상담, 자문 등 단체 내 확산을 위한 노력 - 그 외 스포츠인권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 등
체육지도자	스포츠인권 확산 사례	1.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식변화 사례 2. 스포츠인권을 반영한 교육 및 지도 사례 - 스포츠인권 교육자료 등 개발 - 스포츠인권에 교육자료 반영한 지도 방법
**인권지킴이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	1. 인권지킴이 업무 적용 및 긍정적 변화 사례 - 인권지킴이 업무 적용을 위한 교육, 자문, 상담 등 - 인권지킴이 업무 적용을 통한 인권향상 사례 등

*인권지킴이 업무 적용을 위한 교육, 자문, 상담 등
*인권지킴이 업무 적용을 통한 인권향상 사례 등

문의사항 02-2144-8241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실)

접수방법 및 심사

접수방법 이메일(sports@aroundkorea.kr) 접수

접수서류 한국 번외 전자 문서 12인*zip 형식

NO	구분	서류 내역	세부 내용
1	공통 제출 서류	(제1차) 참가 신청서	한국IDWP인 작성, 서명한 서류 후 사본
2		(제2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IDWP인 작성, 서명한 서류 후 사본
3		(제3차) 사막서	한국IDWP인 작성, 서명한 서류 후 사본
4		(제4차) 저작권, 초상권 등의 동의서	한국IDWP인 작성, 서명한 서류 후 사본
5	응답 서류	(제5차) 우수사례 보고서	한국IDWP인 또는 jpg 작성
6		참가자의 자격 확인서	기관장, 소속단체장 확인서/개인직업영수증 등 *인정서(제5차 포함)

시상 내역 및 특전

구분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체육지도자	인권지킴이
대상	1팀, 50만원 상당 상품	1팀, 50만원 상당 상품	1팀, 50만원 상당 상품
최우수상	1팀, 20만원 상당 상품	1팀, 20만원 상당 상품	1팀, 20만원 상당 상품
우수상	1팀, 10만원 상당 상품	1팀, 10만원 상당 상품	1팀, 10만원 상당 상품
참가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당일 거연지킴이 후원(50명, 수상자 제외)		

*상대응 상품에 따라 시상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KSPD 한국체육진흥공단

학생 선수들의 인생을 바꾼 참 스승. 영화 '코치 카터'

켄 카터 전 농구선수이자 코치의 실화
빈민가 학생선수들의 드라마틱한 변화

코치 카터(2005)_토머스 카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참 스승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카터(사무엘 잭슨)는 자신이 졸업한 리치먼드 고등학교에 농구코치를 맡아 그곳 학생들의 농구 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빈민가의 환경과 현실,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굳건히 '정도'를 가는 그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시선과 싸우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선수들은 모두 학교에 소속된 학생입니다. 하지만 선수라는 이유로,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이 낮으면 학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수들은 수업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사회적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카터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선수들이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상 학점 충족 기준을 설정했고, 이에 따르도록 학생과 학교에 요구한 것입니다. 모두가 반발했지만, 이는 카터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대학진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범죄율이 매우 높은, 삶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역에 사는 십대 학생들에게 미래를 선물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영화는 먼저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만큼의 실력을 다지는 엄격한 훈련의 모습, 경기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화제가 되는 모습을 전반부에 보여줍니다. 카터는 혈기왕성한 십대 선수들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장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회에 팽배한 인식 즉 선수 개개인이 발전하는 삶보다 당장의 승리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경을 거슬러 성공하는 법



수치상, 그리고 체감상, 리치몬드 고등학교에서 농구선수로 사는 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카터는 선수들이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합니다.

방법이 꽤나 극단적인데, 카터는 선수들의 학점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훈련과 경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를 지키는 것 즉 사회인으로 살면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카터는 사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들 각자가 카터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희망적이지 않을 것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제야 눈을 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수들은 농구를 통해, 카터의 가르침을 통해 현실을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탓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그 지역의 분위기 속에서 패배와 절망을 학습하고,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있다가, 카터와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지푸라기를 잡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영화는 농구라는 스포츠가 주는 역동성과 즐거움, 승리의 희열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드라마를 모두 녹여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켄 카터를 통해 참 스승이자 하나의 인간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화 '코치 카터'입니다. (사진출처:네이버영화)

박병호 “박주상 군의 완치, 우리 선수들에게 희망을 줬다”

박병호(36·kt wiz)는 8년 만에 박주상(17) 군을 만난 뒤, 감격에 젖었다.

박병호는 병마와 싸워 건강을 되찾은 박주상 군을 만나 "주상 군이 완치됐다는 소식이, 우리 선수들에게도 희망을 줬어요"라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도 했다.

박주상 군은 지난 15일 서울시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 퓨처스 올스타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프로야구 선수들, 특히 박병호에게 무척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박주상 군은 9살이던 2014년 7월 19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올스타전에 참여했다.

당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투를 벌이던 그는 KBO의 '소원 성취 이벤트'에 신청해 올스타전 무대를 밟았다.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박 군은 안타를 치고 달리는 이벤트에 참가했고, 자신의 우상이었던 박병호의 손을 꼭 잡고 선수들과 하이 파이브 하기도 했다.

박주상 군은 의지를 꺾지 않았고, 병마와 싸웠다.

그리고 2022년 건강한 고등학생이 되어 잠실구장 마운드에 섰다.

박주상 군이 시구한다는 소식에 박병호도 잠실구장을 찾아, 박 군을 만났다. 박주상 군과 박병호는 서로에게 '큰 선물'이었다.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을 앞두고 만난 박병호는 "8년 전에 박주상 군을 만난 걸 당연히 기억한다. 정말 많이 걱정했다"며 "박주상 군의 건강한 모습을 봐서 정말 좋았다. 대전에 사는 박 군이 내가 대전 방문 경기를 할 때 경기장에서 응원하러 왔다고도 한다. 지금까지 야구를 계속 좋아해 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박병호는 지난 2년 동안 지독한 슬럼프를 겪었지만, 올해 전반기에만 홈런 27개를 치며 반등했다. 힘겨운 시간을 잘 버틴 박주상 군과 박병호는 서로를 보며 밝게 웃었다.

경기도 체급·투기 종목들, 학생선수 감소에 **‘위기감 팽배’**

전국 종합대회에서 경기도의 종합우승에 앞장섰던 역도와 씨름, 레슬링, 복싱 등 체급 및 투기종목의 선수층이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경기도 체급·투기종목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도내 초·중학교 선수가 5년 사이 20~50% 감소해 향후 선수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일부 종목의 경우 상급 학교 팀마저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선수 감소 현상은 지난 8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하에서 운동선수 최저 학력제 강화와 합숙훈련 금지 등 학교 운동부에 대한 정책 변화로 많은 학생선수들이 타 시·도로 떠난데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체급·투기 종목 저변층 감소가 더욱 심각한 상태다. 씨름의 경우 2018년 초등 76명, 중등 41명에서 2020년 초등 55명, 중등 45명으로 약 10%가 감소했다. 올해는 초등 72명, 중등 42명으로 5년전과 비슷하지만 실제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선수는 이보다 20%이상 적다는 게 씨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역도는 2017년 등록선수가 남녀 8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고작 37명에 불과하고 여자 선수는 10명도 채 안된다.

복싱은 중학생 등록 선수가 5년전 92명에서 올해 6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클럽소속 선수가 100여명에 달해 학교팀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레슬링 역시 5년 전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종목에 비해 체급·투기 종목 저변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생활환경 변화로 어렵고 위험한 운동을 기피하고 있고, 초·중학교 지도자들이 낮은 수준의 보수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전직 또는 타 시·도로 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학교 저변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멀지않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에서 종목이 퇴출될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최근 꿈나무 육성을 위해 3천만원을 쾌척한 민강원 경기도씨름협회 부회장은 “경기도 씨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씨름 종목은 사라질 수 있다”며 “경기단체와 교육청, 도체육회가 적극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저변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한 종목단체 임원은 “도교육청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비인기 종목들이 선수 기근에 빠질 수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학생선수를 발굴해 육성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야구 선수는 스타가 아닌 학생, 현장 지도자들의 절규

"혹시 한국에서 고교 야구의 인기가 뜨거운가? 나만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다."

얼마 전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로 부터 들은 질문이다. 바로 답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국 고교 야구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자신이 스타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너무 많다. 야구 좀 한다 싶으면 대부분 스타 의식을 갖고 있다. 몇몇 엘리트들에 의존하기 때문은 아닌지 걱정이야. 그러다 보니 자꾸 기본기가 약해진다."

비단 외국인의 눈에만 그렇게 비친 것이 아니다. 고교 야구 현장에선 이미 선수들의 스타 의식이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레전드 코치 출신으로 현재 고향 고교 팀들의 인스트럭터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애들은 야구를 코치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배운다. 유튜브에서 본대로 따라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몸도 영글지 않았고 기본기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 트라웃이나 오타니 같은 폼을 한다고 그게 될 일인가. 추상 화가인 피카소도 그림의 기본인 정물화를 기가 막히게 그릴 줄 알았다고 한다. 기본이 돼 있어야 거기서 창작도 나오고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선수들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감독 코치들도 별반 힘을 못 쓴다. 선수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지도자들은 자리 보전 탓에 움츠러 들어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구 명문고 A팀 감독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A 감독은 "선수들이 수업을 듣고 훈련을 해야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훈련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나이트 시설이 돼 있는 학교는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전체 훈련량이 크게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사설 야구 교실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 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지도자들과 방향이 다르면 골치가 아파질 수 밖에 없다. 선수는 비싼 돈 내고 배워 온 것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감독 코치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마치 감독 코치가 틀렸다는 듯한 반응이 나올 때는 답답하기 이룰데 없다. 점차 선수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팀 워크를 만들어가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고교 야구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스트럭터 A는 "야구 좀 한다 싶으면 코칭 스태프도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여기 저기 매스컴을 많이 타니 벌써 스타가 된 줄 아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 마음 같아선 고교 야구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정도다.. 선수들의 인식 자체가 잘못 된 경우가 많다. 일단 기본부터 배우고 그 위에 새 집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을 익힌다는 건 대단히 고단한 일이다. 요즘 선수들은 그 시간을 버텨보려 하지 않는다. 눈 앞에 쉽고 편한 방법만 찾고 실천한다. 보족한 대안이 없어 그저 애만 태우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작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와 국내 스카우트 모두 "점차 고교 야구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선수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스타가 나오고 그 스타에 의해 야구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한국 아마추어 야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현장 지도자들의 뼈아픈 고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외적인 성장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더 늦어지면 그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안동시체육회, 도민체전 출전 선수 뇌출혈 입원 '능장 보고'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한 안동시 소속 고교 선수가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안동시에는 5시간이나 늦게 보고돼 위급상황 보고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시각 안동시체육회 일부 임원들은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안전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8일 학부모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35분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안동시선수단 박모(17·생명과학고) 우수 선수가 준결승 시합을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 통증과 두통으로 포항 S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선수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박 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우수 학생부 65kg급 4강전에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박 군은 시합 후 상대 선수의 시합을 참관하기 위해 동료들과 인근 포항 포은체육관을 찾았다 피로감과 두통으로 숙소로 돌아왔으나 상태가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수센터 사무장은 이날 오후 6시10분쯤 안동시체육회 K모 팀장에게 응급상황을 보고했으나 안동시 체육과장이나 직원들에게는 밤 11시쯤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시각 체전에 참가한 선수를 챙겨야 할 안동시체육회 일부 임원들이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 주민 김모(50)씨는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체전에서 출전 선수가 위급한 상태로 입원을 했는데도 술판만 벌이는 일부 체육인들의 행태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다”며 “안동시체육회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박 선수가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고, 능장보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져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세계육상] 프레이저-프라이스 "30대 엄마 선수도 해낼 수 있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125000007?input=1195m>

횡성군, 제1회 전국대학 스포츠 문화 페스티벌 18~31일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69600062?input=1195m>

비판 여론 의식했나...스포츠에 눈 돌리는 '코인거래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5083&cID=10401&pID=10400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http://mksports.co.kr/view/2022/632433/>

흔들리는 대선공약,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 축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788416>

[헬스토피아] 축구와 야구 팀 스포츠, 운동 효과는 좋지만 부상은 걱정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207180850003&sec_id=561801&pt=nv

스포츠 예능 전성시대, 명과 암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851087&CM

[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85108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김세훈의 스포츠IN] 브라질·토트넘이 한국축구에 던진 과제들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7180355003&sec_id=520101&pt=nv

공 대신 총... 우크라이나 스포츠 선수 3000명 전장서 싸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15/114477444/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